



22132280



KOREAN B – HIGHER LEVEL – PAPER 1
CORÉEN B – NIVEAU SUPÉRIEUR – ÉPREUVE 1
COREANO B – NIVEL SUPERIOR – PRUEBA 1

Friday 10 May 2013 (afternoon)
Vendredi 10 mai 2013 (après-midi)
Viernes 10 de mayo de 2013 (tarde)

1 h 30 m

TEXT BOOKLET –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booklet until instructed to do so.
- This booklet contains all of the texts required for paper 1.
- Answer the questions in the question and answer booklet provided.

LIVRET DE TEXTES –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ouvrez pas ce livret avant d'y être autorisé(e).
- Ce livret contient tous les textes nécessaires à l'épreuve 1.
- Répondez à toutes les questions dans le livret de questions et réponses fourn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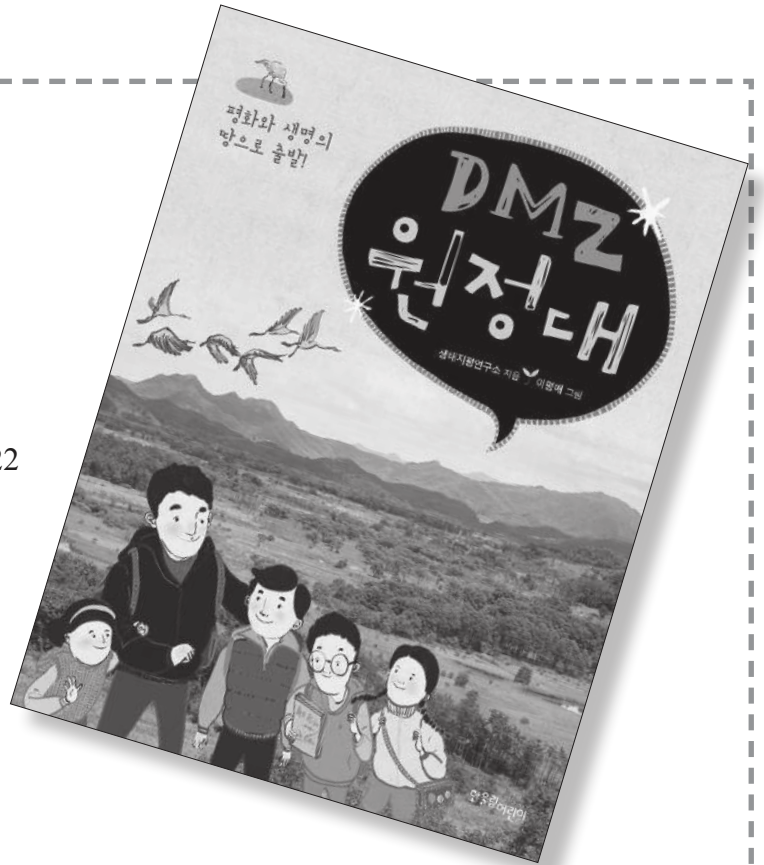
CUADERNO DE TEXTOS –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 No abra este cuaderno hasta que se lo autoricen.
- Este cuaderno contiene todos los textos para la prueba 1.
- Conteste todas las preguntas en el cuaderno de preguntas y respuestas.

본문 A

《DMZ 원정대》

생태지평연구소 지음 | 이명애 그림
 한울림어린이 출판 | 160쪽 | 2011.12.22
 13 000원 | 초등학교 가운데 학년용 |
 한국환경 및 시사



1950년에 일어난 한국전쟁이 3년 1개월 동안 이어지다가 1953년 미국과 소련의 중재로 휴전 협정이 맺어지고, 군사 분계선(휴전선)이 그어진다. 이 선의 위와 아래 2킬로미터씩 떨어진 지점에 북방 한계선과 남방 한계선이 그어졌는데, 이 양쪽 한계선 안쪽에서는 무기를 쓰지 않기로 한 비무장지대 (DMZ) 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의 비극과 군사적 긴장감이 감도는 비무장지대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오히려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 이 책의 기본 콘셉트다.

책의 주인공들이 비무장지대 원정대를 꾸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걸친 장기간의 답사 프로젝트에 임한다. 오두산 통일 전망대에서 북쪽을 바라보며 시작된 여정은 겨울 철새들의 안식처인 철원 평야에서 마무리되는데, 그 사이에 백령도, 강화도, 김포와 철원 평야를 돌아보게 된다.

<학교도서관저널> 2012.3

본문 B

부산영화제



① 올해부터 부산영화제의 영화 상영과 각종 행사들은 새롭게 문을 연 “영화의 전당”에 집중될 예정이다. 때문에 영화제를 찾은 관객들 또한 이곳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될 수도 있다.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을 옆에 둔 채 수영천을 마주한 전당의 전경은 아름답지만, 독특한 구조만큼은 처음 방문한 관객들에겐 너무 어렵다.

② 전당을 구성하는 건물은 총 세 개. 비프힐과 더블콘, 시네마운틴이다. 이중 일반 관객들이 주로 이용하게 될 공간은 총 4개의 상영관을 갖춘 시네마운틴으로, 영화의 전당을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가장 왼쪽에 위치한 건물이다. 만약 티켓을 발권 받지 않은 상태라면 시네마운틴 출입문 바로 옆의 창구와 맞은편에 있는 빨간 컨테이너 박스의 창구를 이용하자. 출입문 창구는 예매발권 전용, 컨테이너 박스는 현장예매 및 시네필 전용이다. 비프힐은 프레스와 게스트 전용, 더블콘은 카페와 식당 및 홍보관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비프힐은 프레스나 게스트 배치가 없으면 출입이 불가능하니, 헛걸음을 하지 않도록 하자.



③ 일단 시네마운틴을 찾았으면 하늘연극장과 소극장, 중극장, 시네마테크 중 내가 볼 영화의 상영관을 찾아가야 할 차례다. 우선, 하늘연극장의 1층 좌석은 시네마운틴에 들어왔을 때 바로 보이는 102, 103 입구로, 2층과 3층 좌석은 각각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과 4층에 내리면 된다. 이때 층수를 헛갈리기 쉬우니 주의할 것. 소극장과 중극장, 시네마테크는 시네마운틴 바깥에서 연결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 6층 로비까지 이동한 뒤, 그곳에서 다시 계단 혹은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 두층만 더 올라가면 된다.

④ 시네마운틴에는 하늘연극장의 101, 104 출구 앞에 각각 놓인 긴 소파를 [-X-], 여러 명이 테이블에 둘러 앉아 이야기를 [-18-] 수 있는 6층 시네라운지 등 관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19-] 편이다. [-20-] 시네라운지에는 데스크톱 세 대가 설치돼 있어 기다리는 시간을 [-21-] 얇게 보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화장실도 [-22-] 휴지까지 [-23-] 되어 각 층에 마련돼 있다.

<10 아시아> 2011.10.06

본문 C

엄마를 부탁해

- ① 네가 처음 쓴 편지는 엄마가 도시로 나간 큰오빠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받아적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 너의 오빠는 너희가 태어난 마을이 속한 소읍에서 정규 고등학교를 마치고 일년 동안 혼자서 공무원시험 공부를 한 뒤에 발령을 받아 도시로 나갔다. 자신이 낳은 자식과 엄마의 첫작별이었다. 전화가 없던 그 때의 유일한 통신수단은 편지를 쓰는 것이었다. 도시로 간 오빠는 편지지에 큼직큼직한 글씨로 엄마에게 편지를 써 보내곤 했다. 너의 엄마는 오빠의 편지가 도착하는 날을 귀신같이 알았다. 그 마을엔 오전 열한시쯤 우편집배원이 커다란 가방을 자전거 앞에 매달고 오곤 했다. 오빠의 편지가 오는 날엔 엄마는 발에 있다가도 도랑에서 빨래를 하다가도 집에 들어와 우편집배원이 전해주는 오빠의 편지를 직접 받곤 했다. 그러고는 네가 학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 ② 네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는 너를 뒷마루로 데리고 가서 오빠의 편지를 꺼내 내밀었다. 큰 소리로 읽어 보라, 했다. 집을 떠난 너의 오빠의 편지는 “어머님 전 상서” 로 시작되었다. 편지쓰기의 방식을 교과서에서 배운 듯이 “어머니께 드리는 편지” 라고 시작했다. 빨래는 일주일에 한번 당숙모에게 갖다주면 빨아준다고 씌여 있었다. 숙소도 얻었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 꼭 성공해서 언젠가는 엄마를 편하게 해줄 것이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니 어머님, 제 걱정은 마시고 아무쪼록 어머님 건강을 챙기셔야 합니다, 라고도 썼다. 오빠의 편지를 큰 소리로 읽다가 네가 편지지 너머로 엄마를 넘겨다보면 너의 엄마는 뒤란의 토란대나 장항아리를 [- 35 -] 응시하고 있었다. 편지를 읽어주는 너의 목소리를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엄마의 귀는 [- 36 -] 세워져 있었다.
- ③ 편지를 다 읽고 나면 너의 엄마는 너에게 엄마가 부르는 말을 편지지에 적으라고 했다. 엄마가 불러주는 첫마디는 형철이에게였다. 형철이는 너의 큰오빠 이름이다. 너는 엄마가 불러주는 대로 형철이에게, 라고 오빠의 이름을 적었다. 엄마가 마침표를 찍으라고 하지 않았지만 이름 뒤에 점 하나를 찍었다. 엄마가 형철아라고 부르면 너는 형철아! 라고 적었다. [- 37 -] 엄마가 형철아 부른 뒤에 침묵을 지키면 너는 쏟아지는 단발머리를 귀 뒤로 넘기고 불펜을 든 채로 귀를 쫑긋 세우고 편지지를 들여다보며 엄마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날씨가 차졌구나, 라고 불러주면 너는 날씨가 차가워졌구나, 라고 썼다. 형철이에게하고 불러준 뒤 엄마의 다음 말은 날씨에 관한 것이었다. 여긴 봄이 와서 꽃이 피었구나. 엄마가 사투리를 쓰지 않을 때는 오빠에게 전할 말을 불러줄 때뿐이었다. 아무쪼록 여기 걱정은 말고 네 한몸 건사 잘 하길 바란다. 너의 엄마가 불러주는 마지막 말은 늘 똑같았다. 아무쪼록 밥은 굶지 말고 다니거라. 엄마가.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2008

본문 D

인터뷰

“이야기 한국사” 는 총 50권으로 이뤄진 시리즈물이다. 역사적 사건의 사회적 맥락에 초점을 둔 KBS 다큐멘터리 <역사 스페셜>에 방영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초등학교 대상 시리즈의 기획자는 베테랑 편집자 출신 기획자인 김공희씨(47)다.



Q: 역사 스페셜 내용을 어린이용 책으로 만들 기획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A: 이야기 한국사 시리즈는 선사시대사회부터 19세기 말까지의 주요 인물이나 사건들을 동화라는 틀에 담아낸 역사 동화다. 애초 구상한 것은 역사 스페셜 방송 내용을 비교적 원형 그대로 어린이용으로 바꾸는 것이었지만, 저작권 때문에 중간에 동화로 방향을 틀었고 관건은 그 내용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었다.

Q: 다큐멘터리가 사실의 영역이라면 역사 동화는 픽션의 영역이다. 이 차이에서 생기는 어려움은 없었나?
 A: 역사 스페셜에 이미 픽션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데다 작가들이 다큐멘터리뿐만 아니라 드라마 집필 경험도 갖고 있는 이들이어서 기본적인 틀을 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Q: 이야기 한국사의 기본적인 열개는 [-X-] 보다는 [-43-] 을 중심에 두었는가?
 A: 그렇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역사 속에 묻혀 있던 [-44-] 을 재조명하는 데 비중을 두려했다. 예를 들어 그동안 장희빈은 대표적인 [-45-] 로 취급됐다. 이야기 한국사에서는 [-46-] 의 유교중심 사회에서 스스로 자신의 [-47-] 을 개척해나간 여성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주간경향> 2010.12.14

본문 E

어린이용 전자태그

서울시 “초등생 위치확인 유료서비스 확대”

- ① 서울시가 실시간으로 자녀의 위치를 확인해 유괴나 실종을 예방하는 “유(u)-서울 안전 서비스” 를 2014년까지 서울 시내 모든 초등학생에게 확대한다. 하지만 이 서비스가 유료여서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20일 현재 구로구 초등학교 7곳 어린이 3141명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유-서울 안전존” 서비스를 개편해 오는 2014년까지 서울 전역 588개 초등학교 학생 56만명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② 유-서울 안전 서비스는 평소엔 휴대전화로 자녀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비상시엔 경찰 등에 연계돼 긴급구조가 이뤄진다. 휴대전화나 스마트폰이 있는 어린이는 위급할 때 미리 등록된 단축번호를 눌러 112에 신고할 수 있다. 현재 초등학교 반경 300-500m인 위치 확인 범위도 2014년까지는 서울 모든 지역으로 확대된다. 시는 휴대전화 없는 초등학생에게는 캐릭터형 전자태그를 판매할 계획이다. 전자태그 값은 15만원이며 월 이용료는 8000원가량이다. 그러나 휴대전화 없는 아이들에겐 [- 54 -] 이다. 다만 저소득층 자녀 약 5만명에게는 전자태그 등 단말기 구입비용과 월 이용요금을 전액 지원한다.

<한겨레신문> 2011.09.20